

장면 1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헌에 막 들어섰다.

인물: 승상, 소대성=소생

공간: 중헌

상황: 승상과 소대성이 중헌에 들어감

이때 왕 부인이 중헌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인물: 왕 부인

공간 이동: 중헌 → 내당

상황: 왕부인이 승상과 소대성을 보고 내당으로 자리를 피함

정보의 인지: X (왕부인은 아직 소대성을 모름)

승상은 벌써 중헌에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했다.

“백년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빠 나와 맞이하시오.”

승상의 발화: 백년가객(소대성)

왕 부인이 마지못해 나와 소생을 맞이하니,

‘마지못해’ → ‘왕 부인’은 내키지 않음

공간 이동: 내당 → 중헌

승상이 말했다.“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윗감을 직접 데려왔소.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함께 내 말과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오.”

승상의 발화: 승상은 소대성을 좋게 평가함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시비가 명을 받들고자 안으로 들어갔다.

인물: 시비 (소저를 데리러 감)

왕 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왕 부인은 승상의 명을 거역하지 못함) 소생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왕 부인의 반응: 소대성에게 선비의 기상이 없음을 알게 됨

정보의 인지: X → O (왕 부인이 소대성을 알게 됨)

이에 왕 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데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왕 부인의 내면 심리: 소대성이 마음에 들지 않음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인물: 소저=채봉

“아버님께서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신단 말이나?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 씬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채봉의 발화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헌에 나오지 않았다.

채봉의 반응: 소생(소대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승상의 명을 거역

상황: 왕 부인과 채봉은 소대성이 마음에 들지 않음, 왕 부인은 승상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나 채봉은 거역하려함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 이제 아버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류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짐과 다름 아니어라. 아버가 세 번 부르는데도 좇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도다.”

승상의 발화

외적 갈등: 승상vs채봉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중헌에 나아갔다.

채봉의 반응: 강제로 승상의 명을 따름

공간 이동: 내당 → 중헌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상황: 자리가 불편해 소대성이 나가려하자 승상이 만류함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은 자리에서 있었다. 소생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 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 군자를 집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승상의 발화 (to채봉)

채봉이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승상의 발화 (to소대성)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이옵니다.”

소대성의 발화 (to승상)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보았다. 비록 확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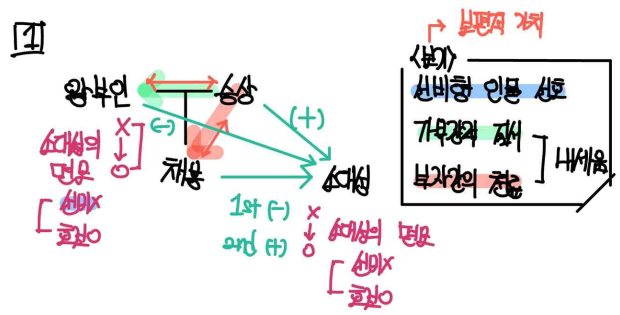
소대성의 반응: 채봉의 외양 묘사 → 긍정적

이때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다.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니는 듯 백호의 기상이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탄복했다.

채봉의 반응: 소대성의 외양 묘사 → 승상의 명감에 탄복

정보의 인지: X → O (채봉이 소대성의 면모를 알게 됨)



장면 2

[중략 부분 줄거리] 승상은 갑작스레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왕 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한다.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난다.

인물: 승상의 아들들

이튿날 채봉은 왕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오는데, **오라버님** 들에게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간다 했습니까?”

채봉의 발화 (to왕부인)

인물: 소생=군자=소대성, 승상의 아들들=오라버님

정보의 인지: X (소대성에게 일어난 일을 모름)

“너는 규중처자의 몸인데, **외간 남자의** 유무를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왕부인의 발화 (to채봉)

정보의 인지: O (소대성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음)

채봉이 자제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소녀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헌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끈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온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채봉의 발화 (to왕부인)

정보의 인지: X(소대성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모름, 추측)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나? 대개 수절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오륙 년 후에 육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종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왕부인의 발화 (to채봉)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말했다.

“어머님! 분명히 중헌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중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되다고 하십니다. (옛날 초나라 왕이 다섯 살 된 공주에게 ‘네가 자라면 성 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머느리로 주겠다.’라고 희롱했습니다.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첩이 다섯 살 적에 부왕께서 성 밖의 백성에게 저를 머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왕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나,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머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써 간청합니다.’라고 초왕에게 여쭙었는데,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고사 인용**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소녀는 이제 열셋입니다. 어찌 소녀가 다섯 살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

채봉의 발화(to왕부인)

채봉의 반응: 고사를 인용해 고사의 소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소대성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정당함을 밝힘

왕 부인은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채봉을 꾸짖었다. “네가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왕부인의 발화 (to채봉)

채봉은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의 연만은 끊을 수가 없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채봉의 성격 (내면,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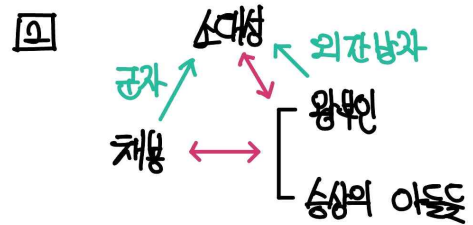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엔 총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채봉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님의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했사옵나. **고사 인용** 하니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 하셔야 합니다. 한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옵니다. 정녕 한심합니다.”

채봉의 발화 (to 오라버님)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보기 분석〉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 소설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 소대성

주인공의 성격: 호걸형 인물

당대의 보편적 가치 (절대성X)

1. 가부장적 질서를 내세움
2.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움
3.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 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지문 근거

이때 왕 부인이 중헌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인물: 왕 부인

공간 이동: 중헌 → 내당

②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지문 근거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신단 말이나?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들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헌에 나오지 않았다.

채봉의 반응: 소생(소대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승상의 명을 거역

③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헌에서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지문 근거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상황: 자리가 불편해 소대성이 나가려하자 승상이 만류함

④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지문 근거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엔 충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⑤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지문 근거

채봉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씀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너는 두 지아버를 섬기지 않는다 했사옵나. 고사 인용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간 남자

㉡ 군자

① ㉠과 ㉡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대성이 떠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다.

장면2에서 왕 부인은 ‘네 아버님께서 오륙 년 후에 육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종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친가지다.’ 라는 발화를 통해 혼인의 정당성을 부정하였고 채봉은 ‘어머님! 분명히 중헌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중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라는 발화를 통해 혼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②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대성이 떠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다. 서로 다른 사건이어야 ‘연속적’일 수 있다.

③ ㉠과 ㉡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간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대성에 대한 호칭에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④ ㉠과 ㉡을 통해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대성이 떠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다. 서로 다른 사건이어야 ‘인과적’일 수 있다.

⑤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각각의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대성이 떠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다.



29. [A]에 나타난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지문 근거

(옛날 초나라 왕이 다섯 살 된 공주에게 '네가 자라면 성 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회롱했습니다.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첩이 다섯 살 적에 부왕께서 성 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왕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나,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써 간청합니다.'라고 초왕에게 여쭙었는데,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고사 인용**

'채봉'이 아닌 고사의 공주의 행적에 해당한다.

②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들어 발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문 근거

"어머님! 분명히 중현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종지의를 이룬 것이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되다고 하십니다."

③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문 근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④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1번의 지문 근거로 같음

⑤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환기하고 있다.
2번의 지문 근거로 같음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 소설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등장 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가부장적 질서: 승상 → 왕 부인, (채봉도 가능)

부자 간의 천륜: 승상 → 채봉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 왕부인

- ①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 부인이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들이길 바라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장면1에서 승상의 발화 중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을 통해 '부자 간의 천륜'을 알 수 있고 왕 부인의 발화 중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데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를 통해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에서, 주인공이 지닌 호걸형 인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군.

지문 근거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보았다. 비록 확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소대성의 반응: 채봉의 외양 묘사 → 긍정적

- ③ 승상이 독단으로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윗감으로 정한 것에서,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군.

승상의 독단으로 인해 왕 부인과 채봉의 거부감이 야기된다. 추후 채봉의 반응에서 '부친의 명감'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부친이 이미 소대성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인지: O → O)

기출 Ref

2411 박태원 골목 안 30번 5번 선지: 양 서방은 자신을 가둔 인물이 갑순이 할머니 입을 이미 알고 있다. (정보의 인지: O → O)

- ④ 왕 부인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에 따르다가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지문 근거

왕 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왕 부인은 승상의 명을 거역하지 못함) 소생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왕 부인의 반응: 소대성에게 선비의 기상이 없음을 알게 됨
정보의 인지: X → O (왕 부인이 소대성을 알게 됨)

이에 왕 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데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왕 부인의 내면 심리: 소대성이 마음에 들지 않음

'선비의 모양새가 없었다.'를 통해 왕 부인의 소대성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승상의 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 ⑤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닮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탄복하게 된 것에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임이 드러나는군.

장면1의 채봉의 반응에서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신단 말이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다.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니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탄복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채봉의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인지 (X → O)를 잘 체크하자.

